

[랩 위드의 AI 기반 솔루션 >](#)

랩 위드가 기술사업화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단 AI를 직접 만든 이유



기술사업화 랩 위드

2026.07.30. 16:08 조회 0



댓글 0

URL 복사



우리가 AI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랩위드는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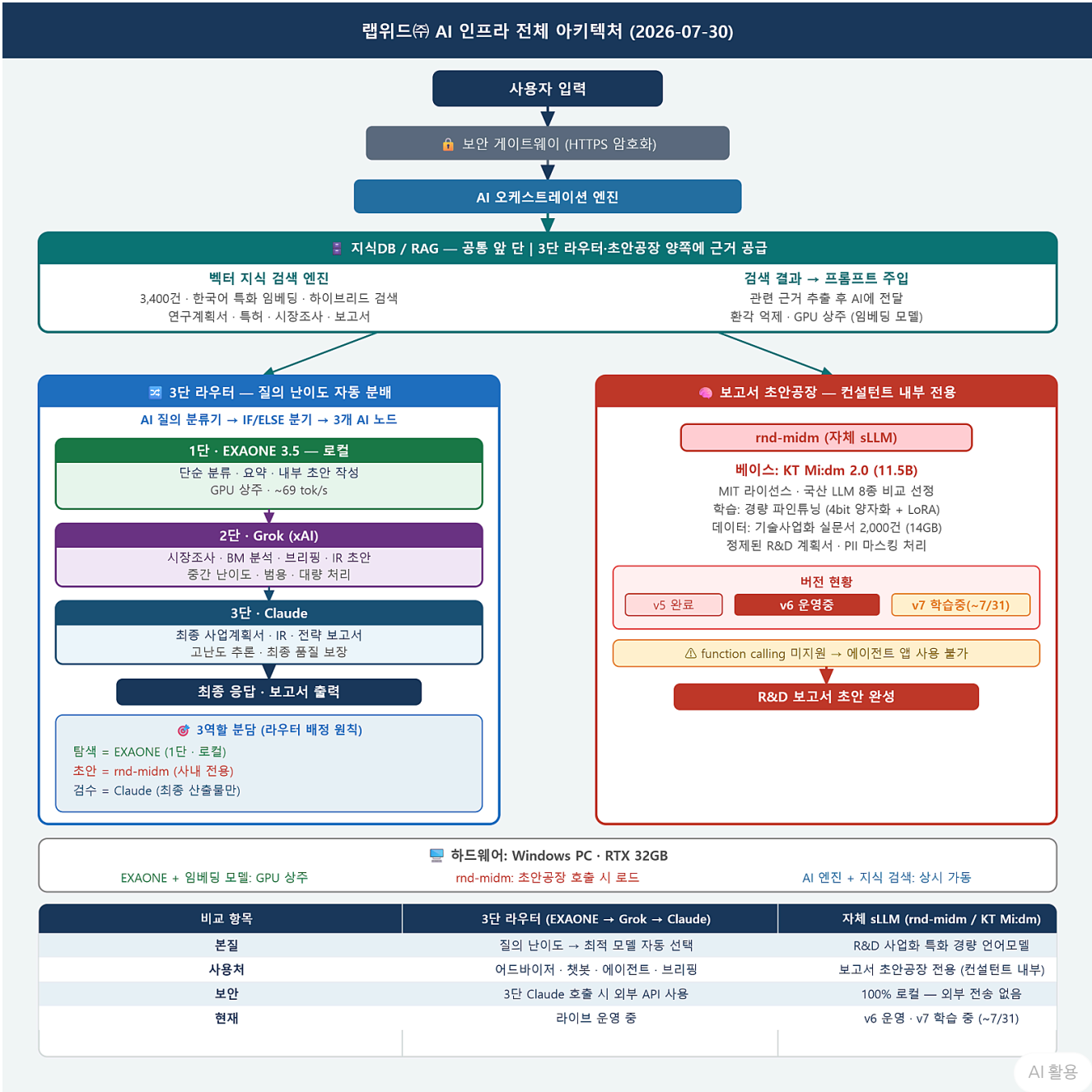
기술이전, R&D 사전기획, 시장조사, 사업화 전략, 투자 연계까지 — 기술과 사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AI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사업화 컨설팅의 깊이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AI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거기에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셋까지 —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랩 위드는 10년간 실제로 수행하고 완료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기술사업화 타당성 분석, 시장조사 보고서, 사업화 전략, 결과보고서 2,100건(14GB)** 으로 전용 AI를 학습시켰습니다.

과제에 선정되고, 검토를 통과하고, 성과를 낸 정제된 자료들입니다.

AI라는 효과적인 도구에,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셋을 더했습니다. 컨설팅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3단 라우터 + 전용 AI

랩위드 AI 인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① 3단 라우터 — 질의 성격에 따라 최적 AI를 자동 배정

컨설팅 업무에서 AI에게 던지는 질문은 성격이 다양합니다. 정보 검색, 시장 분석, 전략 수립, 최종 보고서 완성 _ 각각 요구되는 깊이와 정밀도가 다릅니다.

3단 라우터는 들어온 질의의 성격과 난이도를 자동으로 판별해 가장 적합한 AI에게 넘깁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과 분류는 사내 서버에 상주하는 AI가 즉시 처리합니다. 시장조사, BM 분석, 브리핑처럼 정보를 종합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은 중간 단계의 AI가 담당합니다.

고객에게 제출하는 최종 사업계획서, IR 자료, 전략 보고서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AI가 투입됩니다.

컨설턴트가 AI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합한 곳으로 배정됩니다.

② 자체 sLLM (rnd-midm) — 기술사업화 전용 보고서 초안공장

3단 라우터와 별개로, 보고서 초안 생성만을 전담하는 전용 AI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rnd-midm입니다.

이 AI는 앞서 설명한 기술사업화 자료 2,000건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목차 구성, 정량목표 설정 방식, 요소기술 분류 체계, 사업화 방안 작성법을 압니다.

컨설턴트가 과제 정보를 입력하면 이 AI가 초안을 잡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초안을 검토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3,400건의 지식DB에서 근거를 먼저 찾아 초안에 반영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내용을 지어내는 일도 줄어듭니다.

사내 서버에서만 구동되기 때문에 고객의 R&D 자료, 기술 정보, 재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랩위드가 AI 인프라를 구축한 이유는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한 시장조사, 더 탄탄한 사업계획서, 더 빠른 초안 작성 _ 컨설턴트가 본질적인 판단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가 보조합니다.

그리고 그 AI가 기술사업화 자료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 AI와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무료 진단도 있으니 맛보기로 사용해 보세요.

기술사업화의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 www.labwith.kr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